



Vol. 21  
2014. Autumn

| www.wjbus.co.kr |



# 이신경

협동조합형 노동자주관리기업








photo by\_장범주 승무원

# 停留場風景

아, 버스 언제 오지?  
짧은 기다림이나 기다림에 여유가 없는 아이들.  
그래도 그 기다림 한 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한옥 기와집 처마 밑에  
달박달박 모여앉아 노닐던  
어릴 적 우리네의 모습도 기억난다.

정류장 풍경이 참 다행이다.  
모두가 있어도 넉넉하다.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2014. Autumn VOL. 21	woojin essay	버스정류장 풍경	02
		우진에세이 장부상망(長毋相忘)! 우진교통이 부르는 세 번째 노래를 아십니까? / 대표 김재수	04
		초대글 협동조합형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쉽 /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조규호	06
		우진인터뷰 우진교통에서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 신중호 승무원	08
		아름다운 사람들 서대권 신양우 승무원	11
	culture life	소통하며 화통하다 승객과 승무원의 짧은 Talk!	12
		칭찬합니다 최정규 승무원	14
		가족여행기 부녀도라는 섬에서 / 김연정 (5021호 김영태 승무원 자녀)	16
		건강코너 남성갱년기란? / 충북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 김원태	18
		시내버스로 떠나는 작은여행 부수천으로의 산책	20
	woojin life	우진 가족 이야기 사랑하는 남편 / 김미선 (시설관리부 김계복 반장 가족)	24
		현장문화 제5기 자주관리교실 졸업여행 가는날 / 정만영(제5기 A반장) 공동체의 미래를 찾다 / 협동조합 선진지 연수단 기록단 2014년 노동조합 체육대회 / 신정섭(교육선진부장)	26
		교통정보 시내버스 시외노선 요금제도 간편화에 따른 요금 변경	30
		Sketchbook	31
		노동에세이 제원호 참사 추모와 행동 충북촛불 문화제를 다녀와서	35
	woojin story	노동조합소식	36
		틀린그림찾기	38
		우진의 화노애락	39

## 장무상망(長母相忘)! 우진교통이 부르는 세 번째 노래를 아십니까?



# 장무상망



우진교통에는 우진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고 부르는 노래 세 곡이 있습니다.

첫 곡은 자주관리교실 1기 학생들이 만든 “우진노동자의 삶”이고 둘째 곡 역시 2기 학생들의 작품인 “하나되어”입니다. 이 노래들은 우진교통의 인재양성 6개월 교육과정인 자주관리교실을 이수하고 제주도 졸업여행 갈 때, 기념으로 작사 작곡하고 제목도 공동토론으로 붙여진 노래입니다. 3기와 4기는 아쉽게도 건너뛰었으나 금년 졸업생인 5기 학생들이 다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장무상망(長母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길장장

말무뎌 서로상相 잊을망忘)’는 뜻입니다.

또한 매우 독특하게도 5기 학생들이 만든 세 번째 노래 제목이기도합니다.

제주에서 우진의 세 번째 노래 제목이  
태어난 사연입니다.

2014년 9월 18일 졸업여행 3일차, 전설의 섬, 바다 속의 이상향 이여도가 솟아 오른다면 꼭 닮았을 마라도를 다녀오고 이어서 대정에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에 들렸습니다. 건축가 송효상씨가 세한도 속 집 모양을 형상화하여 설계한 추사관 전시실에서 추사선생님의 글씨와 그림들을 만났습니다.

국보인 세한도 앞에 섰습니다.

늦여름인데도 마치 겨울 한라산의 모진 바람과 추위에 맞선듯 서릿발 같은 기상이 엄습합니다.

세한도를 감상하여 청정해진 마음과 눈으로 그림 오른쪽 아래 여백에 찍힌 빨간 유인(遊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무상망(長母相忘)! 이라는 예쁜 인장이 낙관(落款)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그 의미를 마음에 담자, 그건 유인(遊印)이 아닌 추사 김정희선생님의 인생역정에서 배어난 간절함이며 의리와 절개이자 겨울소나무에 핀 붉은 꽃송이로 보였습니다.

겨울 제주 추위 속에 노니는 붉은 꽃 한송이를 가슴에 품으며 5기생 스무 명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옆 방에 전시된 추사선생님의

다른 작품들도 감상했습니다.

고창 선운사에 있는 백파선사부도비문(華嚴宗主 白坡大律師 大機大用之碑) 탁본에서 절제되고도 강력한 붓 끝의 힘과 기품 넘치는 유려함도 느껴보고, 생애 마지막 작품인 서운 봉은사 판전(板殿) 현판 글씨를 보면서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 유(有)와 무(無)의 경계가 허물어져 그 긴장감이 해체되어가는 글씨의 숨소리도 들었습니다.

‘장무상망(長母相忘)’ 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선물로 나누는 것으로  
추사선생님과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다음 행선지인 정방폭포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버스 속에서 5기학생 대표인 안태근 반장과 정민영 반장의 공동사회로 ‘노래 제목 정하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제목 없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른 다음, 제목으로 ‘아름다운 꽃’ ‘하늘 꽃’이 제안되고 결정하려는데 갑자기 양이식 학생이 ‘장무상망(長母相忘)’을 제안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아주 잠깐 돌더니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표결결과 압도적 차이로 장무상망(長母相忘)이 노래 제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동지애와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스스로의 마음과 결기를  
확인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가시덤불 속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곱게곱게 피어올라라.  
향길 품고 아름다움을 뽐내어 멀리멀리  
퍼져-라.

꽃이여! 꽃이여! 아름다운 꽃이여! 우리  
들 가슴 속에 남아서

이제-는 아름다운 향기 속에서 영원-  
히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런 사연이 있는 우진의 세 번째 노래 제목 ‘장무상망(長母相忘)’의 가사입니다. 처음엔 제목과 가사의 어울림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만 자주관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지금은 둘의 조화가 참으로 절묘하다는 느낌입니다.

각각의 노래에는 당시 우진교통의

시대상황과 구성원들의 소망 등

우진의 역사성과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첫 노래인 ‘우진노동자의 삶’이 우진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구성원의 단결과 투쟁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노래인 ‘하나되어’는 동지에 대한 진한 사랑을 기초로 우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선언합니다.

3년만의 새 노래인 ‘장무상망(長母相忘)’은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었고, 구성원간 신뢰와 사랑 가득찬 가슴으로 우진이라는 꽃과 향기를 잘 보존하자라는 희망과 행복을 노래합니다.

꽃은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무화과(無花果) 역시 꽃이 없는게  
아니라 열매가 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진이라는 꽃은 10년 후 20년 후 세월이 지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마음껏 상상하면서 그 상상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우진 구성원분들께 마음 속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설악산에 첫 눈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눈을 들어 세한도를 바라봅니다.

첫 눈 소식 때문인지 세한도의 무상함과 늠름함, 그리움과 절절함 그리고 여백의 공허함 속에 핀 붉은 꽃 한송이가 홍매화(紅梅花)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 꽃의 이름이 바로 ‘장무상망(長母相忘)’입니다.

‘장무상망(長母相忘)’은

우진교통 역사의 향기이고,

구성원들의 염원이 깃든 노래입니다.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 구성원들의 삶과 사랑을 만드는 방식이기도합니다.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진 구성원 및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대표 김재수

# 협동조합형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

통합의 현상적 본질은 통일(統一)이 아니다.

변화가 빠르고 심한 동(動)적인 시대에는 통합이 아닌

화합(和合, harmonic combination)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 규 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앞들이 지고 있습니다.....'

도중환 시인의 가을비라는 시의 일부이다.

이 시각 무심히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는 필자도 이 싯구처럼 우울해지는  
모드이다.

자연은 보는 사람의 색깔에 달려있다는데 나는 왜일까?

공동체가 분명한 우리 사회는 최근 갈등, 반목, 분열 등

어찌 보면 좌우 대립이 심했던 해방이후의 시대 못지않게 말 많고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퇴보 현상을 두고도 보수와 진보의 의견은 보는 시각부터 다르고 특히  
세월호 문제 등을 다루는 시각과 방식도 너무 상이하다. 불신 속에 애도했던 국  
만들 사이에도 분열은 커져만 간다.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인식이 자주 안타  
까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지도자가 주장하는 '통합'이란 방향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견해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의  
리더십이 통합을 향한 리더십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리더 통치이념이라는 판단  
이다.

세월호 문제의 처리 등에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 들어서서도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반대쪽 의견은 협의 대상으로 존중되  
는 것이 아니고 무시 내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統合)이란 무엇인가?

통합이란 하나의 전체 집단을 이루어 모든 구성원  
이 규범,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다른 문화, 종  
교적 배경을 가진 집단구성원 상호간에 개방적 관  
계를 갖는 합산(integration)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  
나의 이념과 가치, 규범으로 통일된 집단이 되는 합  
일(consolidation)이 아닌 것이다. 통합의 현상적 본  
질은 통일(統一)이 아니다. 변화가 빠르고 심한 동  
(動)적인 시대에는 통합이 아닌 화합(和合,  
harmonic combination)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과 같은 위급의 시  
기가 아니라면 강요된  
사고,

하나의 주장과 판단이  
통일된 의견이 좋다는  
미명아래 통치철학이  
되고 기본적 인식관이  
된다면 변화하는 사회  
에서는 갑갑해지고 위  
태해지기까지 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곳에서 이러  
한 위험한 단일성을 살펴보자.



필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가끔씩 접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각각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이  
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데 때때로 부적  
응자가 생기고 이혼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우  
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을 살펴보면  
남편과 시부모, 사회의 편견, 좁은 아량, 그리고 본  
인들의 노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렇다면 이들을 받아드리는데 있어 우리 사회는 어  
떻게 해야 하나? 해답은 문화적응의 다문화주의  
인정이다. 즉 모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한국의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동화(同化)를 주장하기 보다

는 양쪽 문화를 같이 받아들이며 가능하면 병행하는  
것을 스스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자는 생각  
이다. 민주적이고 그래서 현실적이다.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우진교통의 경우는 어떤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주)우진교통 구성원의 직장만족도를 조사했던 필자  
가 보는 우진교통은 현대 사회의 모습만큼 변화와  
경쟁 속에 다른 노동자자주기업에 비해서는 앞서지  
만 아직은 불만족하는 구성원(약 10%)도 적지 않다  
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방침과 정책에 다른 의

견을 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은 바람직한 것  
이다. 불만이 있는  
현상이 나쁜 것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것  
을 받아들여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이 화합의 리더십이  
다. 구성원들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결로 결정되면  
인정하는 자세로 불만을 접어야 한다.

변화시대 최고 지혜의 세계관을 알려주는 노자는 '  
도덕경' 제2장에서 유무상생(有無相生)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아름다움과 추함, 어려움과 쉬움, 있음과 없음은 모  
두 상대적 관념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서로 모순  
된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다는 것  
이다. 산의 정상은 산골짜기가 있기에 존재하며 산  
골짜기는 그 윗부분이 있기에 존재한다. 서로를 포  
용하고 있기에 하나의 산이 되는 것이라는 가르침  
이다. 어느 국가의 융성시대에는 나타났던, 서로를  
인정하며 소통으로 포용하는 화합(和合)의 리더십  
이 우진교통에도 필요하다.



제2의 꿈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우진교통에서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취재 \_ 김우규, 김기승

개인의 삶 속에서  
노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  
정감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로 신중호 승무원,  
함께 만나봅니다.



### 우진교통과의 인연은 어떻게

입사 전 직업의 특성상 1주일에 3,4일 숙박이 있어서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우진교통에 입사한 선배의 권유로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이후 여러 방면으로 우진교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다방면으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먼저 기타교실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09년 "차고지투쟁"때 매일 반복되는 집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노래 몇 곡 한 것이 발판이 되어 동료들이

알게 되었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동료들의 요청으로 시작은 하였지만 회사의 특성상 회원의 대다수가 회사의 직책을 맡고 직무에 충실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회사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다시 재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 우진교통 노래 작곡도 하셨다고..

자주관리교실 졸업 작품으로 '우진노동자의 삶'이란 작곡곡을 제출했어요. 김강곤선생님이 녹음 도와주셨는데, 현재 홈페이지 메인 창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기 자주관리교실에서 작사한 '장부상

망'의 작곡도 함께 했습니다.

### 글 솜씨가 좋으셔서 우진 "소식지 편집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노동조합 "마중불"로 가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신 계기가 있거나 소감이나 느낀 점을 듣고 싶습니다.

글솜씨가 좋다는 건 "과찬" 이고요. 회사생활하며 내가 느끼는 좋은 점들을 좀 더 많은 사람(우진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소식지 활동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활동 하던 중 "마중불"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 "마중불"은 청주시 운수노동자를 상대로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알리고 개선함에 무게가 있기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듯 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마중불"활동으로 비정규직철폐, 가스충전시간 연장, 종점지 화장실개선 등등... 좀더 나은 노동환경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애환을 알리고 개혁해 나감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글의 특성상 "소식지"는 조금은 부드러운 글이고, "마중불"은 간결하고 결단력있는 글이라 함께 하기에는 아직 제가 부족해서 현재는 "마중불"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지"도 "마중불"도 회사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진 구성원들에게 강추(강

력추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더 폭넓은 인목을 갖게 될테니까요.

###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2013년 9월2일 사고로 허리를 다쳐 아들이 4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은 겹친다더니 아들이 퇴원하면서 친가와 처가 어르신들이 병상에 계시고 현재도 치료 중에 계십니다. 대학생이 둘이고 전세금 인상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컸는데 가문의 단비라고 공동복지회에서 특별장학금을 주셔서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

"너의 일 나의 일"구분없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며 뒤쳐지는 동지를 끌어 올려주고 선두에 선 동지를 받쳐 주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 우진교통이란?

"제2의 꿈"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인데 아마도 이 생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

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2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금의 우진교통을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하고 입사하면 평생직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실패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알고있습니다.  
"혁신적 실패"란 말이 생각납니다. 혁신을 이루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에는 실패가 따라온다. 하지만 실패를 하다보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보면 성공이오고 성공이 쌓이다 보면 혁신이 된다.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제2의 꿈을 위해 화이팅!  
우진 파이팅!

**신중호 승무원은 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다. 인터뷰하는 내내 그러한 모습의 저력을 느껴볼 수 있었다. 우진교통의 건강한 문화의 기운을 듬뿍 안고 있는 신중호 승무원의 제2의 꿈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곳에 우진교통의 미래가 함께 있을 것이다.**



## 서대권 + 신양우 승무원

갈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낙엽의 흩날림조차도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사색의 계절,  
책 한권 들쳐 볼 수 있는 여유가 그리워지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있게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계절입니다.  
하루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의 풍요로움과 맛을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취재 \_ 김진상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조용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5004호 신양우, 서대권 승무원을 소개합니다.

동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씩씩한 개그에도 말한 사람 쑥스럽지 않게 잘 웃어주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좋은 서대권 승무원, 전 직장 레미콘 믹서트럭 경력으로 차량 정비에 대해 나름 경험이 있어서 차량관리를 맡아서 하는 신양우 승무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겨주며 나름 재미있게 생활하는 짝꿍들입니다.

자주관리교실 3기생으로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였는데, 수료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신양우 승무원은 말합니다.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에 입사하기 전 파업이나 집회, 투쟁 등으로 메스컴을 통해 좋지않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입사 후 자주관리교실 교육을 통해 파업 때 선배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나 알게 되었고 그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극복했는지의 과정을 알게

되었고 구성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이런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낸 우진교통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서대권 승무원은 말이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정책결정 과정 또한 자주관리교실을 통해 배워서 한층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믿음 또한 갖게 되어 집회나 자치모임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편하게 받아주는 친형같은 신양우 승무원,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한 서대권 승무원을 걱정하는 신양우 승무원의 말처럼 좋은 짝 만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일하면서의 짝꿍끼리도 더 잘 맞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겠지요. 서로의 소통이 잘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차량관리나 운행업무가 잘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도심을 벗어나 시 외각지를 가보셨나요?  
 나뭇잎은 어느새 붉은색을 띠며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늘의 푸른색은 더 짙어져 눈을 맑게 합니다.  
 버가 익어 고개를 숙인 황금들판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승객들의 불편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실물>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물건을 잊어버려서 당황했던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분실물에 대하여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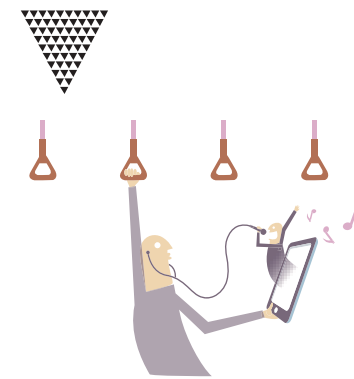
조은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김기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 권미순 청주시 상당구 증향로

바쁜 시간 취재에 응해주신 승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신 분 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 드렸습니다

취재 \_ 김우규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노선만 알고 계신다면  
 청주시 시내버스를  
 공동 관리하는  
 공동관리위원회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어떻게 잃어 버렸나요?

**승객** 시내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다가 정류장에서 급하게 내려면서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승객** 저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지갑이 빠진 것도 모르고 정류장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승객** 버스를 탈 때는 손에 물건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잠시 내려놓았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승무원들께 질문 해보겠습니다.  
 승객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떨습니까?

**승무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분실물이 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내릴 준비를 해야하는데 스마트폰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 하자마자 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려기에 바빠서 그렇지 않나 합니다.

**승무원**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지갑이고요, 핸드폰, 가방, 우산류, 마이바카드 등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희귀병환자가 분실한 약이 든 가방을 찾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승무원** 틀니를 분실물로 신고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반찬이나 농산물이 든 가방이나 봉지 등을 습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는 학생들 가방이나 교복도 있었어요.

**승무원** 분실물 찾겠다고 종점지에 와서 하동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찾은 뒤에 지갑에 현금이 없어졌다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대부분 회사로 습득 신고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실물을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떠한 경로로 분실물을 찾게 되었습니까?

**승객** 11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해주는 시내버스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다른 회사 번호를 가르쳐 줘서 여러 번 다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바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분실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내버스가 차고지로 입고된 뒤에야 분실물 접수가 되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승객** 저는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는데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탔던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버스 기사님과 동화를 해서 어디 정류장에 있으면 주시겠다고 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분실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승객**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버스를 타는 승객 입장에서는 노선 번호만 보고 타기 때문에 어떤 회사 버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물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센터같은 것이 있어서 그곳의 대표전화를 만들어 제가 탔던 버스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승객** 맞아요. 그러면 승객들은 여러 곳을 찾을 불편도 없고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승객** 그리고 그곳에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분실물 사진을 찍어서 올려 주면 더욱 편리하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별로 연락해서 하려니 너무 불편해요

승객이 물건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응급대처사항으로는 탑승한 시내버스 회사를 알고 있다면 해당회사로,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노선만 알고 계신다면 청주시 시내버스를 공동 관리하는 공동관리위원회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운행 중에는 시내버스 승무원과의 통화가 안되고 종점지에 가서 연락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분실물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버스 운행 중에는 분실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은 분실물들은 바로 인근 경찰서로 인계하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속상하기도 하거나와 불편함이 큼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주위를 한번만 더 확인 하는 습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습득한 분실물들이 효율적인 절차에 의해 관리된다면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간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취재 \_ 김경준

## 부지런한 삶의 모습 최정규 승무원을 칭찬합니다

요즘 같이 각박한 세상에 언론 사회면 중에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맛이 나게 하는 기사가 있다. '재능기부'라는 말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승무휴게실 한 칸을 보면 나무향내 고스란히 나는 소품들이 하나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덕분에 깔끔해지기도 했지만 무뚝뚝해보이는 사람이 손수 제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따스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바로 그 사람, 최정규 승무원을 칭찬합시다에 보시기로 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받고 존경하는  
선배동료가 되길 바라며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칭찬받는  
그날을 만들어 가는 코너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깨끗한 이미지였으면 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제게는 기쁨이 되니까 하는 거죠, 뭐.”

이 뿐만이 아니다. 실제 다른 승무원들이 최정규 승무원의 차량을 타게 되면 깔끔한 차량내부 환경에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시내버스 차량내부의 청결이 곧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의 기본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여기에 주로 예비승무원이 교대하여 운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정비점검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세가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모두의 마음이 짐이어야 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답지 않은 삶의 여유로운 경지가 엿보일 정도였다. 참, 넉넉하고 인심 후한 그런 느낌 그래서 나 자신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털털한 것 같지만 전혀 내색 않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공간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가까이 재능기부해주는 그의 부지런한 삶의 모습에 우리 모두의 칭찬의 마음을 전하며 내내 그 고운 마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정규





## 무녀도라는 섬에서

김연정

/ 502호 김영래 승무원자녀



2014년 7월 31일~8월 1일까지

전라도 군산시에 속해있는

‘무녀도’라는 섬으로

여행을 갔다.

차로 선착장까지 와서 집을

다 배에다가 옮겨서 두 대의 배에

따로따로 나누어 실었다.

내가 탄 배가 먼저 출발하였다.

나는 배를 처음 타보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배를 타니까 시원하기도 하였고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이 날려 불편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잘 견뎌내고 드디어 ‘무녀도’에 도착했다.

아빠 친구 분들의 딸, 아들과 아빠 친구 분 아주머니와 같이 먼저 점심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빠, 엄마, 아빠 친구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다 같이 대게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특히 게 등껍질을 까서 밥과 같이 비벼먹는 것이 일품이었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마치고 나서 식당 위에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서 각자 방에 들어갔더니 정말 좋았다. 아빠가 해수욕장에 간다고 하셔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또 다시 배를 타고 ‘선유도’라는 곳으로 갔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가서 튜브에 바람 넣고 아빠와 같이 수영도 하고 장난도 치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

다. 엄마가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빠 친구 분이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주셨다. 그렇게 놀다가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그만 놀고 간식으로 갑오징어를 초장에 찍어서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다시 배 타려고 선착장에 왔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배를 얼른 타고 ‘무녀도’로 가는 동안에 바람 때문인지 비가 따가웠다. 그래도 배가 출렁출렁 하니까 재미있었다. ‘무녀도’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었다. 다 씻고 나서 머리 말리고 나보다 동생인 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저녁이 돼서 다시 식당에 가서 생선인 ‘돔’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인아주머니가 공책을 주셔서 공책에다가 그림도 그리다가 또 다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었다. 아이들이 되게 어려서 정말



##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巫女圖

귀여웠다. 남자 아이가 있는데 4~5학년 되어 보였다. 그 남자 아이도 아이들이 귀여웠는지 잘 놀아주었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다가 밤이 되었다. 아빠는 원래 우리 방에서 주무셨고, 엄마하고 나는 빈 방에 들어가서 TV를 봤다. 왜냐하면 우리 방은 TV가 안나왔기 때문이다. TV보다가 엄마가 갑자기 얼굴에 뺨을 해주셨다. 그래서 난 그거 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 보니 어느새 깜빡 잠들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이 되게 축축하고 상쾌했다. 나중에 또 하고 싶을 만큼이다.

아침밥을 먹으러 식당에 또 갔다. 거기서 죽을 주셨다. 엄청 맛있었다. 특히 죽에다가 김치를 넣고 먹는 것이 정말로 맛있었다. 그 식당은 김치가 아주 맛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놀아준 다음에 점심에 밥도 못 먹고 그냥 배를 타고 선착장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풀 위에 돛자리를 깔고 아빠 친구 분 아주

머니가 밥을 하셔서 밥을 먹었다. 정말로 맛있었다. 엄마, 아빠, 아빠 친구 분들이 밥을 다 드실 때 나는 아이들과 또 놀았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다시 차에 타서 가다가 중간에 차에 내려서 다른 아빠 친구 분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갔다. 우리 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가셨다.

7월 31일하고 8월 1일은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무녀도에 있는 식당을 우리 반 친구와 담임선생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아빠한테 작은오빠 큰오빠랑 같이 못 와서 좀 아쉽다고 하니깐 아빠께서 큰오빠 내년 1월 달에 군대 가니까 그 전에 꼭 한 번 같이 가서 놀다오자고 하셨다.

드디어 날짜가 잡혔다. 11월 8일, 9일 아빠께서 예약하셨다고 하셨다. 음~ 좋다. 그때 가셔도 오빠들하고 조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와야겠다.



# 남성갱년기란?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 및 의료공급의 개선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과거에 비해 노인인구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노화에 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교수 충북대학교병원 비뇨기과



## 남성갱년기란?

많은 사람들이 남성갱년기하면 여성에서의 폐경을 생각해서 '남자에게 그런 것이 어디있어?' 하는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하여 남성호르몬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매년 총 테스토스테론은 0.8%가 감소하여 55-60세에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고 75세에는 30세의 60%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하여 여러가지 남성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여성갱년기와 남성갱년기의 차이?

여성갱년기는 모든 여성에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사이에 여성호르몬 부족에 의한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 후 폐경 (생식능력의 소실)이 오는 반면, 남성갱

년기는 남성호르몬의 감소가 모든 남성에게서 일정한 시기에 전형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기 보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면서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남성갱년기의 임상증상

1. 성욕저하, 발기력의 감소 (빈도, 질) 특히 야간 발기의 감소
2. 지적활동, 인지능력, 공간/지남력의 감소, 피로, 우울, 성급함을 수반하는 기분의 변화
3. 수면장애
4.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와 관련된 체지방의 감소
5. 내장지방의 증가
6. 체모의 감소 및 피부변화
7. 골밀도 감소

## 남성갱년기의 진단

남성갱년기의 진단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악성종양에 대한 병력청취 및 가족력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갱년기의 증상이나 징후를 파악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호르몬을 측정하는 것이 남성갱년기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 남성갱년기 설문지 AMS (Aging Male's Symptoms)

01. 몸 상태가 안 좋아진 느낌이다.
02. 관절과 근육이 아프다.
03.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난다.
04. 수면장애가 있다.
05. 수면시간을 늘리고 싶고 가끔씩 피곤하다.
06. 잘 흥분한다.
07. 신경이 예민하다.
08. 항상 불안하다.
09. 신체적으로 기진맥진하고 활력이 없다.
10. 근력이 저하되고 있다.
11. 기분이 우울하다.
12. 전성기가 지나버린 느낌이다.
13. 정서적으로 탈진한 느낌이다.
14. 수영이 지라는 속도가 떨어진다.
15. 정력이 떨어지고 성생활 횟수도 줄고 있다.
16. 아침에 발기되는 횟수가 줄고 있다.
17. 성욕이 줄고 성적 충동도 줄고 있다.

### 증상의 정도에 따른 배점

없음: 1,	경도: 2,	중등도: 3,	심함: 4,	매우심함: 5
판정기준	없음	경도	중등도	고등도
정신적 증상 (6,7,8,11,13)	5점 이하	6-8	9-12	12점 이상
육체적 증상 (1,2,3,4,5,9,10)	8점 이하	9-12	13-18	19점 이상
성적 증상 (12,14,15,16,17)	5점 이하	6-7	8-10	11점 이상
총점	17-26	27-36	37-49	50점 이상

## 남성호르몬의 보충요법

경구약제, 경피용제제, 주사제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효과

1. 골밀도의 증가
2. 체형의 개선 효과, 근력 증가
3. 성기능 개선
4. 신체기능 회복, 신체 기능의 강화
5. 활력증가,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개선

##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부작용 및 금기증

### 1) 전립선

현재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임상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전립선암을 임상적으로 발견 가능한 전립선암으로 진행시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소 전립선암이나 전이된 전립선암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병을 진행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보충요법 전에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수면 무호흡증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수면 중 무호흡증을 야기하고 악화시킨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는 남성에서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 3) 적혈구 증가증

남성호르몬은 생리적으로 적혈구생성 촉진인자입니다. 적혈구의 생성은 빈혈환자에게는 도움이되겠지만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나 율형성 심부전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적혈구용적 증가 및 혈전증의 증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無心川 Musimcheon

## 청주시민의 쉼터, 무심천으로의 산책

가을하늘 풍성한 뭉게구름 행복이 넘친다.  
청주시민의 쉼터 무심천으로 산책 나가기로 했다.  
무심천은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된다.

/  
취재, 사진 김경준



01

## 文巖生態公園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자리잡고 있던  
이곳이 다시금 태어났다.

- 01 문암생태공원
- 02 문암생태공원 문암정
- 03 택견하는 사람들
- 04 문암캠핑장 (무료)



02



03



04

상류지역은 피발령 근처의 가덕면  
(내암리~인차리), 중류구간은 청주시  
방서동지역이며 청주한씨의 집성촌  
지역이던 곳이다.  
하류구간은 무심천과 미호천의  
합류구간이 있는 곳이고 근처에는  
문암생태공원과 정북토성이 있다.  
청주시내에서도 가까운 무심천의  
하류지역으로 산책을 하기로 했다.  
무심천주변으로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송절동~부강방면을 운행하는 400번  
대를 이용하면 된다. (주요환승지역은  
상당공원, 버스간격 15분대))

송절동 버스종점에서 하차를 하였다.  
이곳 종점에서 문암생태공원 까지는  
도보로 10여분쯤 걸린다. 늦가을 흠뻑  
내린 비로 인해 갈기엮기로수의 노랑고  
붉은 단풍들이더 상큼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수북한 버드나무 잎새의 흘날림도  
부드럽다. 무심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  
옆 인도를 걸으면서 주위의 풍경도  
감상하며 걷다보니 어느새  
생태공원까지 왔다.  
10여년 전에 송절동을 지나 이 길로  
까치내를 지나 옥산까지 자주 다녔다.  
그 당시에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자리잡고 있던 이곳이,  
청주시민의 큰 쉼터인 생태공원으로  
다시금 태어났다. 정문을 지나  
좌측으로 인공폭포가 있고 그 뒤로  
언덕배기 위에 생태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암정 정자가 소나무에  
감싸여 있다. 넓은 중앙 잔디밭을  
기준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도 잘 되어있고, 단체로  
야유회를 즐겨도 되며, 울여름  
가족들과 많이 들렀던 바베큐장도  
마련되어 있다.



05



06



05-08 정북토성

07



08

## 井北洞土城

이른아침 안개 속에 보이는  
토성의 능선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맑은 가을 하늘아래 택견을 배우는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이곳을 나오면 정문 옆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텐트 야영장도 있어  
주말을 비롯하여 평일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야영장 맞은편으로 보면  
사람들만 다니는 이쁜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 뚝방길을 걷다보면  
미호천과 무심천의 합류지점이 있고,  
좌측으로는 무심천과 우측으로는  
정북동에 속하는 넓은 농경지가 있다.  
시원함 가득하고 뽕뚝린 시야가 좋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았다.

**우측 너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토성인 정북토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 보이는 토성의  
능선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거의 정방향에 가까운 평면을 이루고  
있고, 동·서·남·북 네 개의 문이  
있으며 토성의 정문에 속하는 남문은  
빗대어져 만들어진 웅성의 형태로  
만들어 졌는데, 웅성은 적이 공격하기  
쉬운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고 한다. 차성은 성의  
모서리마다 불록 튀어 나오게 만들어  
적의 공격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토성의 주위로는 땅을 갠채파고 물을  
채워서 적의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해자도 있었다고 한다.  
정북토성은 궁예가 상당산성을 쌓아  
도움을 삼았는데, 견훤이 산성을 빼앗아  
정북동 토성으로 잠적되는 토성을 쌓았  
다는 기록이 있어, 후삼국 정란기인

09



10

## 磨崖

## 毘盧舍那佛坐像

정하교다리 좌측,  
자연석 바위에 불상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석기류, 토기편과 자기편도 발굴이 되어  
더 오래된 역사가 있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북토성의 역사를 알고,  
다시 한번 이곳을 바라보니 그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  
토성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매년  
3월~11월 까지는 달마다 움집만들기,  
발굴체험, 생태환경답사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곳은, 토성의 능선으로 해가 가라  
앉는 일몰의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토성의 서문으로 나가면 논밭을 사이에  
두고 난 길 끝에 정북동이 있다.**

**좌측으로는 오근장동, 우측으로는  
청주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청주방향으로 가면 정하동 버스종점을

지나 정하교 다리 좌측으로, 자연석 바위  
에 불상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마애비로자나불좌상” 마애는 석벽의  
그림이나 불상, 비로자나는 불교의  
진리를 신격화한 법신, 좌불은 앉아있는  
불상이다.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초기의 작품이라고 한다.  
무엇이 중요하랴!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 보고, 내 마음이 편하면 좋은 것을...  
아침햇살에 불상 앞에서 마음을  
비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

무심천을 따라 둘러싼 곳곳의 이야기를  
살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이번 늦가을의 끝자락에는 갈대가  
지천으로 훑날리는 무심천변의  
이야기들을 만나러 가보자.  
청주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느껴진다.

12



11



09-11 정하교 주변  
마애비로자나불  
12 무심천변의 갈대



사랑하는 남편에게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네요. 참~많이도 살았네, 그쵸?

지금껏 지내온 시간동안 좋았던 일도 많았고 힘든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위암판정을 받고나선 힘들었던 기억보다 당신과 우리아이들이 함께 했기에 행복했던 시간들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 아팠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내겐 너무 소중한어요. 서울아산병원 담당교수님의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땐, 내 몸의 장기를 없애는 것 따윈 중요치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족과 이별하면 어찌나!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힘내라며,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던 당신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문병오신 회사분들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또 얼마나 가슴아파했는지 들을 수 있었죠.

난 당신이 잘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자서 회사일 하랴, 가정 돌보랴, 아픈 아내 돌보랴...내가 맘쓸까 염려되어 힘든 내색 한번 안하던 당신이 어느 날 입가에 수포가 가득 돌아있는걸 봤을 땐 너무 미안했어요. 입맛 없다고 당신이 차려준 밥도 안먹고 짜증이나 부리고...그래도 아무 말없이 다 받아준 거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절망할까 싶어 매일 퇴근해서 돌아오면 “오늘은 직원 누구누구가 당신 편찮을거래, 그러니 힘내래!” 하며 희망 메세지 전하던 당신, 그런 당신이 내 옆에 있고 당신을 통해 날 걱정해주고 기도해 준 많은 분들 덕분에 기적처럼 수술도, 회복도 다 잘되었던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항암치료도 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을 텐데...

그런 당신 곁에서 힘 되어 주려는 회사분들의 노력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당신! 힘내세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이 내 옆에 있고  
당신을 통해 날 걱정해주고 기도해 준  
많은 분들 덕분에 기적처럼 수술도,  
회복도 다 잘되었던 거라 생각해요.



김미선 \_ 시설관리부 김계복반장 가족



# 제5기 자주관리교실 졸업여행 가는 날

정민영  
/ 제5기 자주관리교실 (A)반장

2014년 9월 16일 오후 3시10분  
제주행 비행기를 탈 생각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보였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 자주관리 5기생 중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동기생이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리고 기류에 흔들릴 때  
모두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동기생들을 걱정하였는데  
별 탈 없어서 다행이었다.

## 졸업여행 첫째날

제주에 도착하여 우리는 곧바로 <4.3항쟁 평화공원 기념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제주도의 아픔을 표현했고, 근대사의 아픈 과거를 간직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3항쟁 기념관의 방명록을 보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제주”라는 글이 있다. 외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내적으로는 슬픈 내용을 간직한 제주.....

저녁식사 후 용두암을 가서 구경을 하고 우리는 숙소인 함덕 해수욕장 옆 대명콘도로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자주관리교실 선배님들이 작성한 내용을 읽고 각자의 소견도 들은 후 함덕해수욕장 해변가로 나가 절의에 찬 시간을 가졌다. 해변가에 둘러앉아 서로의 우정도 다지고 게임도 하며 별치으로 바닷가에 입수를 하였다.

처음엔 별치 받은 사람들만 들어갔다. 그렇게 한명 두명 들어가다 결국은 전원이 바닷가에 들어갔고 또한 서로의 이야기속에 밤은 깊어만 가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졸업여행의 첫날을 보냈다.

## 졸업여행 둘째날

어제의 첫 일정을 바쁘게 보낸 탓인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아침식사를 마치고 성산포의 천지항에서 배를 타고 저멀리 보이는 <우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우도는 섬이지만 소의 모습을 닮았다하여 우도라 하는데 생각보다 큰 섬이었다.



우도의 외곽 풍경을 느끼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면서 우도에 또다른 아름다운 전경과 신비로운 8경을 볼 수 있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도에서의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점심시간이 약간 늦어졌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간곳은 동복리 해녀촌에 있는 회국수 전문 식당이었다. 회국수를 먹는 순간 회와 국수 그리고 양념의 어우러진 맛이 입안을 즐겁고 상쾌하게 해주었다.

점심식사 후 <사려니 숲길>을 향하였다. 숲을 걷는다고 해서 소화시킬 겸 몸이 아픈 사람 2명을 제외한 23명이 같이 출발을 하였다. 숲의 아름다움과 상쾌함이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그런데 거리가 10Km나 되었다. 그러나 출발인원 중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목적지에 2시간 10분이 지나서 도착을 하였다. 힘은 들었지만 제주도 숲의 신비로움에 반하였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한번 더 놀랐다.

다음은 <용눈이오름>으로 향하였다. 천재 사진작가가 그곳에서 바람이라는 주제로 사진에 빠져 살았던 곳이라 한다. 제주도의 작은 문화구이기도 하다.



## 졸업여행 셋째날

오늘은 졸업여행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인지 바쁜 일정에 맞추어 새벽같이 식사를 마치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를 향하였다. 배를 타기 전 항구옆 바다와 맞닿은 절벽에 동굴이 보여 궁금하였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으로 송악산이라 불리우며 일제시대 때 군수물자를 그곳에 보관하던 곳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최남단의 섬인 마라도는 작은 초등학교도 있고 그 유명한 자장면집에서 자장면도 맛보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다.

제주도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이기도 하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기념관에 도착하여 추사의 흔적을 느끼고 추사의 한구절 “장무상망”이라하여 “영원히 변치 말자”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우리 자주관리 5기생들은 이 뜻이 간직한 말을 깊이 세겨 영원히 같이하자고 다짐했다. 다음 코스로 정방폭포, 주상절리대를 들렀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뽕국을 먹었다. 뽕해장국 맛이 났고, 제주도에만 있는것이라 한다. 그리고 뽕소라를 회로도 먹었다.

졸업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청주에 도착후 우리5기생들은 그동안의 자주관리교실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우진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노력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하였다.

이것으로 무사히 알차고 뜻깊은 제주도 졸업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있고 대표님이하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협동조합 선진지 (유럽) 연수단 공동체의 미래를 찾다

협동조합 선진지 연수단 기록팀

우진교통은 미래발전 전망의 필요성으로 창의적 발상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할 수 있도록 2013년 1년여 간 한시적으로 '미래성장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보고서의 내용 중의 하나였던 공동체 정신의 유지,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운영사례에 대한 연수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14년 10월15일~23일(9일)이었고 미래성장위원회 활동을 하였던 위원과 간사 12명, 경영팀2명을 포함하여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인 서종식노무사도 함께 했으며 연수 전일정은 벨기에 리에주대학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인 엄형식선생이 맡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지막날 밤 그 먼 곳에서 오랜시간 공부를 하며 고국에서 온 현장연수단원들을 위해 애쓰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로 화답하던 순간이 몽클하게 다가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수는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노동자협동조합(2군데)과 프랑스 리옹에 있는 노동자협동조합(3군데),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중교통관련 사회적기업과 버스업체 방문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리옹까지는 TGV를 이용하고 프랑스 모든 방문지는 전철과 시내버스로 이동하며 실제 대중교통을 경험하였는데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보고서가 완료되면 다음 호 소식지에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을 둘러싼 삶과 그 원천적 배경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 문화적 결과물들이 며칠간의 연수기간에도 눈에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며 토론했던 내용들과 그 순간들의 감동을 곧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만국기가 펄럭이는 호미골공원 운동장에서 구성원들과 함께한 오후의 짧은 시간은 많은 여운들을 남겼다. 아마도 더 함께 하고 싶었던 본인의 마음이 간절해서 그랬던 것 같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많이 신경을 써주신 노동조합 위원장님과 사무장님, 체육부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상무집행위원들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였기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오후의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동장에서의 시원한 생맥주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반나절의 시간으로 대회를 하다 보니 더 많은 즐거움을 구성원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 언젠가는 하루의 시간 속에 전체 구성원이 모두 어우러져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본다.

몇몇 단체에서 방문하여 우리들과 함께 해 주셨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하여 지역 대표 언론사 등 그분들의 눈을 보며 마음 속을 잠시 훑쳐보았다. 부러움의 표시를 웃음으로 표현하는 그분들을 보며 이것이 우리 우진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기가 지위를 내려놓고 부서를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가 부둥켜안고 하나된 모습으로 즐기는데 부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지도 모른다. 외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쁨이 즐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진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해 주세요. 다음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서로 손잡고 둥그런 원을 그리며 "사랑해"라는 멜로디에 우진만의 뜻을 담은 약간의 개사로 노래를 부를 때엔 남이 아닌 하나의 가족 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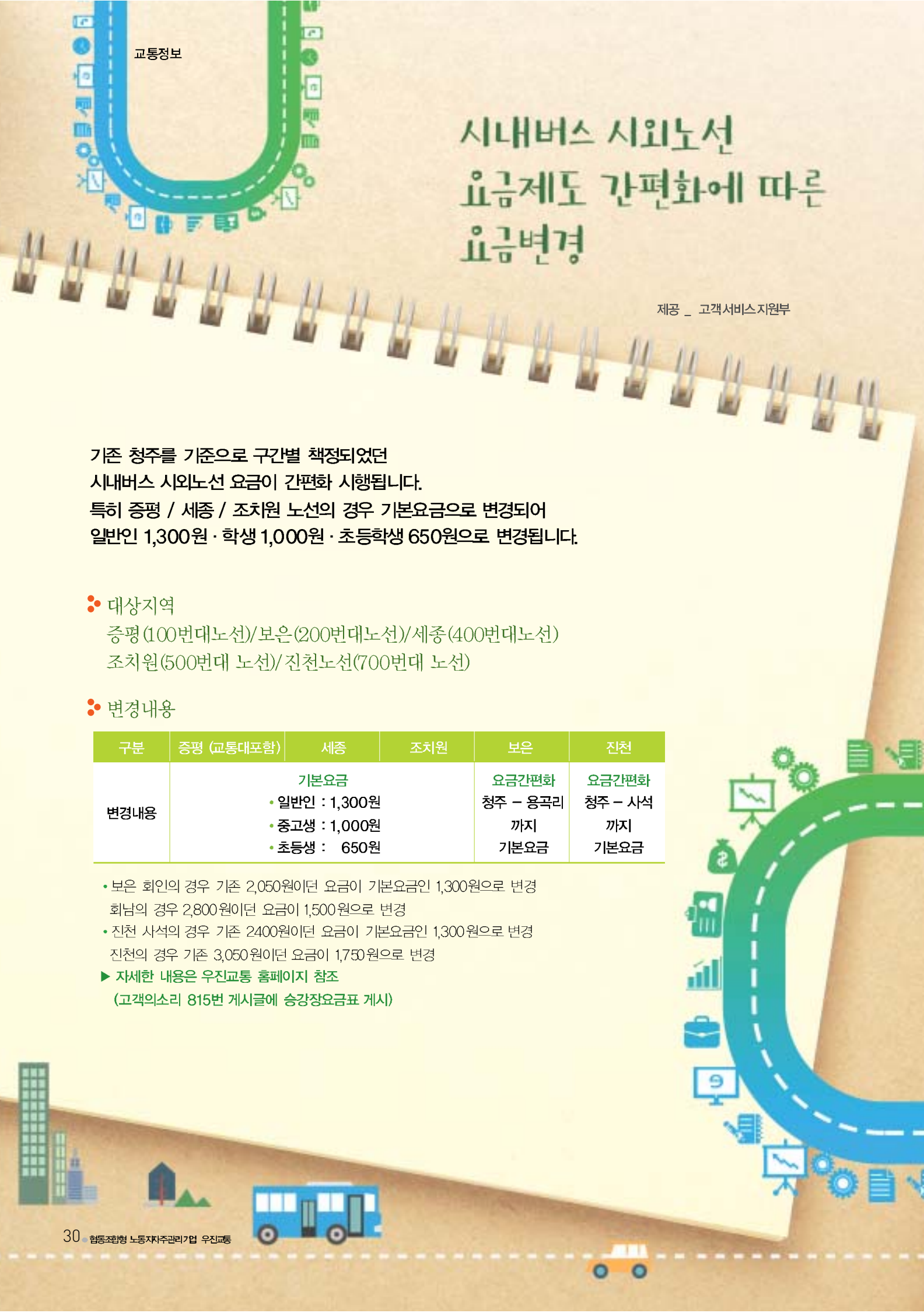
언제나 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

## 2014년 노동조합 체육대회

신정섭 / 교육선전부장







기존 청주를 기준으로 구간별 책정되었던 시내버스 시외노선 요금이 간편화 시행됩니다.  
특히 증평 / 세종 / 조치원 노선의 경우 기본요금으로 변경되어 일반인 1,300원 · 학생 1,000원 · 초등학생 650원으로 변경됩니다.

- ❖ 대상지역  
증평(100번대노선)/보은(200번대노선)/세종(400번대노선)  
조치원(500번대 노선)/진천노선(700번대 노선)

#### ❖ 변경내용

구분	증평 (교통대포함)	세종	조치원	보은	진천
변경내용	<b>기본요금</b> • 일반인 : 1,300원 • 중고생 : 1,000원 • 초등생 : 650원			<b>요금간편화</b> 청주 - 용곡리 까지 기본요금	<b>요금간편화</b> 청주 - 사석 까지 기본요금

- 보은 회인의 경우 기존 2,050원이던 요금이 기본요금인 1,300원으로 변경  
회남의 경우 2,800원이던 요금이 1,500원으로 변경
- 진천 사석의 경우 기존 2,400원이던 요금이 기본요금인 1,300원으로 변경  
진천의 경우 기존 3,050원이던 요금이 1,750원으로 변경
- ▶ 자세한 내용은 우진교통 홈페이지 참조  
(고객의소리 815번 게시물에 승강장요금표 게시)



# Woojin Sketchbook

## 사진으로 보는 우진의 이모저모



14.06.27/07.29 현장자치모임



14.06.27/07.29 현장자치모임



14.07.02 풀뿌리학교 사회적경제 인사업무 전문기관장 수강생 당사 사례교육



14.07.02 풀뿌리학교 사회적경제 인사업무 전문기관장 수강생 당사 사례교육



14.07.09 자주관리위원회 (각종 위원·노조확대간부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교육 김승훈소장



14.07.09 자주관리위원회 (각종 위원·노조확대간부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교육 김승훈소장



14.07.21/0813 자주관리교실 야외수련회(A·B 파스)



14.07.21/0813 자주관리교실 야외수련회(A·B 파스)



14.07.30 서울경영포럼참석- 해외연수팀



14.07.30 서울경영포럼참석- 해외연수팀



14.07.30 서울경영포럼참석- 해외연수팀



14.08.27 경영설명회





14.08.29/09.03 자주관리교실 졸업논문발표 및 총동문회



14.08.27 경영실명회



14.08.29/09.03 자주관리교실 졸업논문발표 및 총동문회



14.09.17 시설관리부 직무항상교육



14.09.17 시설관리부 직무항상교육



14.09.16 제5기 자주관리교실 졸업여행



14.09.16 제5기 자주관리교실 졸업여행



14.08.29/09.03 자주관리교실 졸업논문발표 및 총동문회



14.08.29/09.03 자주관리교실 졸업논문발표 및 총동문회



14.09.02 인천이시안게임 성화봉송 (최준봉 승무원)



14.09.19 해외연수팀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방문



14.09.16 제5기 자주관리교실 졸업여행



14.09.03 구성원총투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4.09.02 인천이시안게임 성화봉송 (최준봉 승무원)



14.09.19 해외연수팀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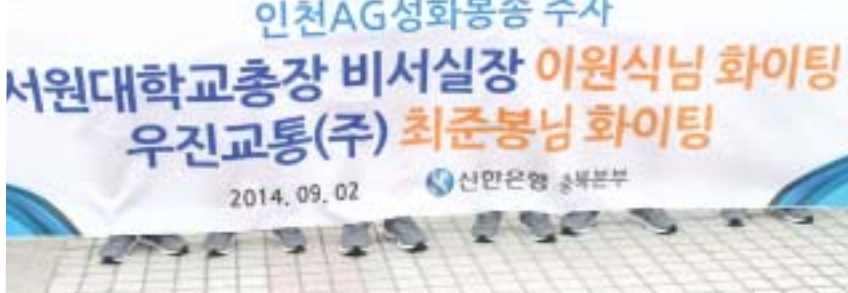
14.09.24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현황과 대안 - 사례발표 및 토론



14.09.24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현황과 대안 - 사례발표 및 토론



14.09.03 구성원총투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4.09.02 인천이시안게임 성화봉송 (최준봉 승무원)



14.09.26/10.02 노동조합 체육대회



14.09.26/10.02 노동조합 체육대회



14.09.26/10.02 노동조합 체육대회





14.10.10 구성원총투표 (정관, 임금, 노동, 경영협약)



14.10.10 자주관리협약위 조인식



14.10.10 자주관리협약위 조인식



14.10.08 경영설명회



14.10.10 구성원총투표 (정관, 임금, 노동, 경영협약)



14.10.23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사례발표



14.10.23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사례발표



14.10.28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특강 - 김재수 대표



14.10.28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특강 - 김재수 대표

노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노동연대원칙, 건강한 노동문화, 삶을 위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함께하는 노동의 소리 ●●



### '세월호 참사 추모와 행동' 충북 촛불 문화제를 다녀와서

7월 10일 충북 촛불문화제가 상당공원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세월호 참사 추모와 행동' 이라고 써 있는 현수막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다. 우리 조합원들도 참석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몰아치던 노란리본의 물결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쓸쓸한 분위기이다. 4월 16일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며 노란리본을 거리에 가슴에 달며 잊지 않겠다고 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이제 몇몇 사람들만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붙잡고 있다.

그 날 촛불 집회에는 단원과 1학년 6반 유가족들이 참석을 하였다.

등에는 60이라는 노란 숫자 속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앞쪽에는 '잊지말아주세요 0416'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전국을 다니며 그날을 잊지말아달라고,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충북에서 모은 서명지도 전달하였다. 단상에 올라 그날에 이야기를 누군가하면, 여전히 히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참사 초기에 진도체육관에 와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여.야 정치권도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유병언 한사람의 개인의 잘못인양 몰아가고, 정부와 정치권들은 시간만 가면 잊혀질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합의안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뺀 그들만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들은 세월호 참사가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인양 잊혀 가고 있다. 처음에는 마치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이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들도 금새 또 잊고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일 인양 모른 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행동하지 않는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손잡고 촛불문화제에 따라와 촛불이 신기해서 마냥 웃던, 천사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세상은 안전한 나라, 국민 모두가 웃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작성 : 박강여 노동조합사무국장



●●노동조합소식

전교조 법외노조판결 규탄 결의대회  
(14,07,03)  
노조간부, 현장자치9조 참여



2014년 제차 임시 대의원대회  
(14,07,10)  
노조임원 대의원9명, 박진하(전)  
부위원장 참여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촉구결의대회  
(14,07,10)  
노조간부, 현장자치 3조 참여



청주 택시 전액 관리제 쟁취  
투쟁집중집회(14,07,18)  
노조간부, 현장자치 10조 참여



조합원들에게 화채 제공  
(14,07,22)  
노조간부, 조합원 참여



제7차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대표자회의 (14,07,30)  
노조위원장 참여

청주노인전문병원 문제해결 촉구  
충북지역 총력 결의대회  
(14,07,31)  
노조간부, 현장자치 6조, 7조 참여



고 변정룡 전 지부장 제6주기 추모제  
(14,08,02)  
구성원 및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상집



노동조합 임원 월례회  
8월 일정정리 및 활동계획수립  
(14,08,04)  
노조 임원 참여

노동조합 상집위원 월례회  
(14,08,06)  
노조 상집위원 참여

타 회사 포함, 조합원 화채 제공  
(14,08, 12)  
노조간부, 조합원 참여



청주노인전문병원 투쟁 승리 문화제  
(14,08,18)  
노조간부 참여

노동조합 전 임원 및  
상집위원 감사장 전달  
(14,08,27)  
조합원 참여



노동조합의 교육·행사 / 연대사업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운수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자주관리 협약구성원 총 투표  
(14,10,10)  
우진 구성원 참석

네슬레 철야천막농성 지지방문  
(14,10,15)  
노조간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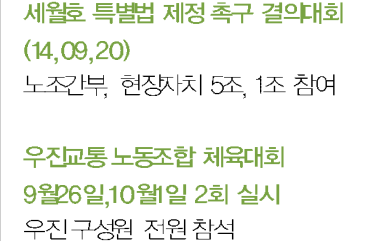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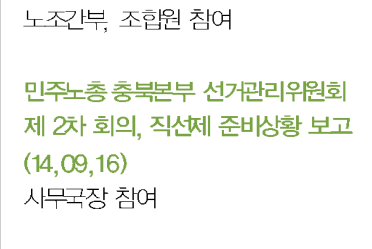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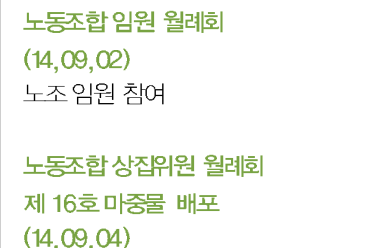
노동조합 임원 월례회  
(14,09,02)  
노조 임원 참여

노동조합 상집위원 월례회  
제 16호 마중물 배포  
(14,09,04)  
노조간부, 조합원 참여

민주노총 충북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제 2차 회의, 직선제 준비상황 보고  
(14,09,16)  
사무국장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14,09,20)  
노조간부, 현장자치 5조, 1조 참여

우진교통 노동조합 체육대회  
9월26일,10월1일 2회 실시  
우진구성원 전원 참석



보수전장 지회  
108배, 출투  
100일 투쟁  
문화제  
(14,10,17)  
노조간부 참여  
가족 참여

청주노인전문병원  
도청 앞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14,10,21)  
노조위원장 참여



제8차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표자회의  
(14,10,22)  
노조위원장 참여

제8차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표자회의  
(14,10,22)  
노조위원장 참여

제8차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표자회의  
(14,10,22)  
노조위원장 참여





## Find the Difference 6

21th Autumn  
틀린그림 찾기

노동조합주최로 '호마골' 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음과 몸이 가을햇살로 맑게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2014년 9월 26일  
노동조합가을체육대회

위 아래의 사진을 보고 틀린 부분  
(6군데를 ○)하여 응모해주세요.  
당첨자는 우진교통에서 제작한  
교통카드(10,000원 충전)를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84 가길4  
우진교통 자주관리실



### 퍼즐당첨자 명단

제20호 틀린그림 찾기 당첨자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우진교통에서 제작한  
충전된 교통카드를 배송해 드립니다.

이복경 (상당구 용암동)  
박원숙 (흥덕구 봉명2동)  
김영미 (흥덕구 옥산면)  
이석돈 (상당구 복문로2가)  
신명자 (청원구 울봉로)  
이현수 (흥덕구 원평동)



2014. 7 ~ 2014. 10

우진의 희노애락

## 喜怒哀樂

### 조의를 표합니다

정문환 모친상 (14.09.04)

장시목 부친상 (14.09.22)

이수호 모친상 (14.10.09)

### 축하합니다

김기선 빙부화갑 (14.07.30) 김지철 본인화갑 (14.08.22)

이재영 본인결혼 (14.09.13) 임경래 모친화갑 (14.09.19)

유은노 본인결혼 (14.09.21) 윤문수 자녀결혼 (14.09.28)

서상식 자녀결혼 (14.10.04)

### 우진교통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식구들 “환영합니다”

정비원 : 모목근 (14.07.21), 홍용우 (14.08.27)

안진성 (14.09.10), 서동국 (14.09.15)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장 신뢰받는 회사로  
늘 자리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384 가길4  
우진교통(주)

TEL. 043-297-4011 FAX. 043-297-4010  
www.wjbus.co.kr